



4면

진라감영 재창조  
복원 마무리 '눈앞'

# 전주매일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음 5월 5일) 제25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책진화 완성도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 열것”

송하진 지사 민선7기 2주년 성과·후반기 방향

체질강화·산업생태계 구축·자존의식 고취 중점  
새 정치지형 형성, 道·政 공조 현안해결 추동력

민선7기 도정 전반기를 마무리짓고 후반기 시작을 앞둔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년을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로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2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지사는 “을 상반기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 전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

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여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도민과 의료진에게 공을 돌렸다.

송 지사는 민선7기 전반기 흐름과 현상에 대해 ▲민선7기 시대의 발전적 정책진화와 위기 극복의 과정 ▲청정지역 전북의 이미지 부각 ▲위기관리와 통합의 리더십 부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격상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대두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 등 5가지로 진단했다.

송 지사는 “8년 전 도지사로 취임하

면서 제시한 내발적 발전전략은 의부적 요인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발전요인을 찾고 최선을 다하지는 취지였다”며 “도는 그동안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5대 중점시책을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 공장 폐쇄, 벼슬론 파산, 서남대 폐교 등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는 더 한층 어렵게 만들었지만 도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잡고 도정을 집중해 서민경제 활력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도약 시대를 향해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의 선도, 탄소 융복합 산업의 확실한 자리매김과 수소·전기차 등 연관산업의 확장 대

표·생태 관광지 조성, 투어패스 안착을 통한 여행체험 1번지 도약, 새만금 국제공항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 산업 재생에너지 메카, 홀로그램 산업 기반 마련, 아태미스터스대회 유치, 새만금 법, 켐버라법, 탄소법 국회 통과 등 더욱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다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수도권 지역의 최후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방역에 철저히 대응해왔다고 자부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교인 관리를 위한 도민신고제 실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해외입국자에 대한 수송, 격리 검사, 원스톱 관리 등을 통해 방역지자체 차원에서 사실상 확진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 됐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은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굳건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도가 힐링, 휴양의 명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하루 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라는 도정 비전에 맞춰 여행체험 1번지로 발돋움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위기관리와 통합의 리더십이 부각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한발 앞선 추경편성, 입국자 원스톱 관리,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지자체가 선도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 이제 중앙정부와 거의 대등한 기능을 하며 명실상부 지방정부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대 총선으로 국회는 기존의 다당제 구조에서 양당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전북은 사실상 단일정당 체제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도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형성으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에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로 송하진 지사는 ▲안전체계의 확고한 구축 ▲경쟁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조성에 역량집중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의 재점화와 실현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 등 다섯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25번째 코로나확진 나이지리아서 입국 40대

정읍 거주 자가격리 중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정읍 여동생의 집에서 격리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지역에서는 25번째 확진자다. 이 남성은 전북대학교병원 격리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A씨는 공항감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1일 KTX 열차

를 이용해 정읍역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정읍역에 도착 후 여동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여동생의 아파트로 이동했으며 이후 격리실에 들어갔다.

격리 기간은 11일부터 23일까지다. A씨는 지난 23일 자가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정읍시 보건당국은 23일 오후 10시 30분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여동생의 자녀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코로나19 주민신고제 확대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사각지대 취약점 보완... 내달 부터

전북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안전 위협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되어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

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7월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사항,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기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민과 함께 청정 전북, 안전한 전북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